



성공적인 토론태도와 전략

- 주장하기와 반박하기를 중심으로 -

토론이란, 자기 의견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부당함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말하기 활동입니다.

토론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들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올바른 토론 태도

1

규칙을 준수하며 말하기

토론은 동일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기회 균등의 규칙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론자는 자신의 발언순서와 주어진 시간 등 미리 토론의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발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연습해 봄으로써 분량이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2

절제된 감정으로 말하기

토론자가 격앙되거나 흥분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토론이 감정적으로 대립됨으로써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제된 감정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청자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여 청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역지사지적 말하기

토론 시 자기주장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논제에 대해 찬반 양측의 논리를 모두 조사 분석하고, 자기에게 유리 또는 불리의 문제를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4

책임감 있게 말하기

토론자에게 정직성과 책임감은 기본입니다. 토론자는 조작되고 왜곡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신빙성 있는 최신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출처의 명확성을 요구 받았을 경우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기 전략

1. 개념정의 형식 : 개념정의 + (문제제기) + 주장

모든 토론은 논제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핵심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맨 첫번째 토론자인 경우 논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물론 논제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상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기주장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예>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 지는데,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 인과관계 형식 : 자기주장 + 이유제시

이 형식은 먼저 자신의 주장을 짚고 분명하게 밝힌 후에 그 주장의 근거를 뒤이어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유에 관한 부분을 듣는 데에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책임 있는 비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둘째,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저작권 보호가 용이해집니다. 넷째, 유언비어나 명예훼손(인권침해)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질서 있는 인터넷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사례제시 형식 : 사례제시 + 문제제기

이 형식은 자신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을 먼저 제시한 후 이것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근거가 분명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 안락사 의사인 케보키언은 90년부터 130여명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시술자’ 또는 ‘신의 대행자’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케보키언 박사가 안락사 시킨 6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5%가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환자가 아니었으며 5명은 질병을 앓았던 증거가 없는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안락사는 환자의 죽을 권리보다는 타인의 자율 판단에 의해 행해져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4. 해결책 제시 형식 : 문제제기 + 해결책 제시

제시된 논제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토론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을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5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선 징병제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징병제도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중 하나로 군복무단축기간에 대한 것을 뽑겠습니다.

반박하기 전략

1. 자문자답 형식 : 자문(반문) + 자답 + 반박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자문함과 동시에 스스로 대답하되 상대방에게도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은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공간입니다.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실명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할까요?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2. 주장대조 형식 : 자기편 주장요약 + 상대편 주장인용 + 문제제기

이것은 자기편 주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뒤 상대편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제기하는 형식입니다.

<예> 저의 측은 아동납치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함으로써 미해결 사건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모방범죄의 증가로 인해 아동납치의 심각성이 대두,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부정측에서는 아동 납치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가 수사기간의 증가와 인력 낭비 및 국민 세금 증가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수사법 상 공소시효의 존재로 한정된 기간 내에 수사를 해결하려고 하나 완전범죄를 노리는 모방범죄로 인해 오히려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인력과 세금 낭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동 납치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완전범죄의 사례를 근절시킴으로써 수사의 장기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3. 일부인정 형식 : 일부인정 + 문제 제기

상대편의 주장 내용 가운데 받아들일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폐지를 무작정 주장하기에 앞서 공소시효 기간 내에 아동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과 납치범죄자들의 검거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생각입니다. 공소시효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사건의 해결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문헌>

장영희(2007). 토론에서의 단계별 대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장영희(2009). 토론능력과 토론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2)